



무주경찰, 물품대리구매 시기 예방 캠페인

무주경찰서(서장 김은희)는 지난 16일 관공서를 사칭, 대리구매 요청 후 잠적하는 물품대리구매 사기(노쇼 사기) 예방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경찰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무주경찰서, 무주소방서,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등 80여명이 함께 했고, 반딧불 시장에서 시작하여 주변 소상공인 업소를 방문, 최근 소방 공무원을 사칭하여 대리구매를 유도하고 선입금을 요구하는 수법 등을 설명하고 사례 중심의 예방 캠페인 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최신 수법을 전파하기 위해 전단지 제작 주민에게 배포하고 업소를 방문 예방 포스터를 부착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였다. 김은희 무주경찰서장은 "물품대리구매 사기, 보이스피싱 등 주민들의 일상을 침해하는 범죄예방을 위해 예방·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무주=손흥기 기자



농협 남원시지부, 영농폐기물 수거 캠페인

농협 남원시지부(지부장 김종주)는 지난 17일, 농신보 남원권역보증센터(센터장 이성진), 운봉농협(조합장 오용담), 운봉농협 농가주부모임과 영농폐기물 수거 캠페인 및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운봉읍 일대에 방치된 폐농자재 및 폐비닐 등을 수거하여 농촌환경을 정비하고, 불법 소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 참여자들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를 통해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에 노력하는 한편, 지역 주민들의 환경보호 인식 제고에도 노력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동충동, 올 청렴 과제 3개 선정·운영

남원시 동충동(동장 박미라)은 전 직원이 함께하는 청렴 실천을 위해 2026년 청렴 과제 3개를 선정하고 운영한다. 3개 과제는 △청렴 자가 점검의 날 △동충동, 청렴을 보다 △나도 청렴 한 마디 등으로 직원들이 일상에서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청렴 과제 중 △동충동, 청렴을 보다는 통장협의회와 직원들이 청렴 교육 영상을 함께 시청하고 의견을 나누며 청렴 공감대를 넓혀가는 과제이고 △나도 청렴 한 마디는 청사 내 청렴 게시판을 운영해 우수 문구를 선정·게시하고 청렴문화를 확산하며 일상 속 청렴 실천 분위기 조성에 나선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덕과면, 51가구 대상 난방유 지원

남원시 덕과면 행정복지센터(면장 박종만) 맞춤형 복지팀은 2025년 에너지바우처 사업과 관련해 등유 및 LPG 사용 세대를 포함한 대상 가구 51세대를 직접 찾아가는 신청 안내를 강화하며 주민 편의 증진과 생활 안정 지원에 힘쓰고 있다. 이번 사업은 고령자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정보 접근이 어려운 주민들을 중심으로 담당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 에너지 바우처 추가지원카드를 현장에서 직접 신청받고 전달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실질적인 '안전 변화' 위해 주력

남원소방서 소방발전위 창립 1주년 기념행사

남원소방서 소방발전위원회(위원장 김학경)는 지난 16일, 창립 1주년 기념행사 및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2년차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행사는 지난 2025년 4월 출범 이후 1년간 위원회 추진해 온 소방 정책 제언과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발전적인 운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발전위원회는 지난 1년간 남원소방서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현장 밀착형 행보를 이어왔으며, 특히 2025년 긴급구조종합훈련 등 각종 대규모 소방 훈련과 주요 행사에서 민간 자문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현장의 전문성을 한층 높였다.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2026년도 소방안전 중점 과제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소방 행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



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김학경 위원장은 "지난 1년이 위원회의 기반을 단단히 다지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 전개될 활동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 변화'를 위해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환자·지역사회에 위로 전하고자"

전북대병원, 합창 동호회 '루미에르' 창단

전북대학교병원이 직원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한 합창 동호회를 창단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전북대병원은 지난 17일 합창 동호회 '루미에르(Lumiere)'를 창단하고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루미에르'는 프랑스어로 '빛'을 뜻하는 단어로 음악을 통해 환자와 직원, 지역사회에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합창단에는 간호직과 보건직, 행정직 등 다양한 직종의 직원 30여 명이 참여해 부서와 직무를 넘어선 교류와 협력의 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초대 회장은 권역호스피스센터 정여정 팀장이 맡아 합창단 운영을 이끈다. 합창단은 정기 연습을 바탕으로 병원 내 문화 활동을 활성화하고 호스피스 병동 음악회와 병원 콘서트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찾아가는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환자 중심의 따뜻한 의료 환경 조성과 함께 구성원 간 유대감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대병원은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진료 역량뿐



아니라 조직문화 개선과 구성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활동도 확대하고 있다. 정여정 회장은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시작된 만큼 음악을 통해 작은 위로와 감동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종철 병원장은 "루미에르 합창단이 병원의 따뜻한 가치를 상징하는 문화공동체로 자리잡길 바란다"며 "노래가 환자와 지역사회에 희망을 전하고 직원들에게는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상근기자

지성은 국제와이즈멘 한국 총재, 고흥사랑 기부



김제시는 지난 17일 국제와이즈멘 한국지역 제16대 지성이 취임총재가 취임식에서 김제시 지정기부사업인 김제형 365일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운영에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지성은 총재는 김제 출신 기업인으로 고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2023년부터 매년 500만원씩 김제시에 기부한 바 있다. 또한 기부 후 받은 답례품 포인트까지 지역 사회를 위해 꾸준히 재기부한 바 있으며, 지역 내에서는 봉사활동으로 나눔의 선순환을 몸소 실천하는 대표적인 기업인으로 알려져 있다. 김제시 지정기부사업인 김제형 365일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운영은 365일 24시간 연중무휴로 일시·긴급 돌봄이 필요한 6개월에서 12세 이하의 아동에 대해 공공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 운영비를 모금하는 사업으로 올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한편 시는 2026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고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확대 기념으로 4월 한달동안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김제=곽태 기자



전북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심리상담소 운영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회장 김홍식)는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센터장 김석환)가 예수병원 일원에서 병원 이용자를 위한 찾아가는 심리상담소를 운영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찾아가는 심리상담소는 병원 이용 과정에서 겪는 불안·스트레스 등 심리적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상담활동가 3명과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직원이 참여해 병원 이용 환자와 보호자, 직원 등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을 진행했다. 필요 시 전문기관 연계도 함께 이루어졌다. 김석환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장은 "불안과 스트레스 등 심리적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난 경험자들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상담과 전문기관 연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2026년 4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예수병원 내에서 찾아가는 심리상담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김제자봉센터 네일아트 봉사단 첫 재능 나눔

김제시는 김제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남궁행)가 지난 16일, 북측동 리문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네일아트 봉사단(회장 김진숙)의 첫 번째 재능 나눔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행성 일하노라 거칠어진 손이 이렇게 예뻐진 것을 보니 마음까지 젊어지는 기분'이라며 '봉사단원들이 펼쳐낸 다정하게 손을 잡아줘서 손끝뿐 아니라 마음까지 따뜻해졌다'고 말했다. /김제=곽태기자

임실군, 자동차 관련 체납근절 유관기관 일제단속

임실군은 지난 16일 임실 운수과출소 앞 도로변에서 임실군, 임실경찰서 합동 자동차 관련 체납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자동차 관련 지방세 및 세외수입, 교통질서 위반 과태료 체납차량이 단속 대상이었으며, 무선영상 단속시스템 탑재 차량을 활용해 체납 여부를 실시간 확인해 번호판영치 및 납부안내를 했다. 현장에서 단속된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영치 및 영치예고를 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500여만원을 징수했으며, 10여 대의 차량에 대해서는 납부안내 조치했다. /임실=진홍영기자

주행 중 차량화재 막아... 신속한 초기 대응 빛났다

군산 최영미 옥산여성의용소방대장

지난 12일 오후 6시 45분께 군산시 대야면 자동차전용도로 군산에서 전주 방향 공덕교차로 인근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에서 연기가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했지만, 이를 발견한 옥산여성의용소방대의 신속한 대응으로 큰 피해를 막아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군산소방서 옥산여성의용소방대 최영미 대장은 당시 앞서가던 차량에서 연기가 새어 나오는 것을 목격한 뒤 곧바로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리고 차량을 안전지대로 유도했다. 이어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비치해 둔 소화기를 이용해 차량 화재를 초기에 진압했고, 빠른 판단과 침착한 대응으로 자칫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었던 상황을 효과적으로 막아냈다. 당시 현장은 제한속도 시속 90km의 자동차전용도로로, 차량 통행이 이어지는 구간 특성상 2차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이었다. 그럼에도 최 대장은 사고 지점 후방 약 90m 부근에 방화구역을 확보하며 활동 공간의 안전까지 살렸고, 차량 내부 상황을 확인한 뒤 초기 진압에 나서는 등 현장 대응



역량을 침착하게 발휘했다. 이번 사례는 평소 생활안전교육과 화재진압 훈련을 통해 익힌 대응 능력이 실제 현장에서 그대로 이어진 사례로 평가된다. 최영미 대장은 제5주년 옥산여성의용소방대의 날을 맞아 도지사 표창을 받은 바 있으며, 평소에도 각종 봉사활동과 안전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며 지역 안전문화 확산에 앞장서 왔다. 이번 사례 역시 지역사회의 안전지킴이로서 옥산여성의용소방대가 맡은 역할과 책임을 현장에서 몸소 보여준 모범 사례로 의미를 더했다. 전북소방본부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옥산여성의용소방대가 재난 현장뿐 아니라 일상 속 위험 상황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 지키는 든든한 안전 파트너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옥산여성의용소방대원들의 현장 대응 역량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 지원체제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만호기자

군산 나운3동, 90세 어르신 생일 음식 지원 '눈길'

군산시 나운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강왕근, 민간위원장 임진희)는 지난 17일, 올해로 5년째를 맞이한 '90세 어르신 생일 음식 지원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90세 어르신 생일 음식 지원사업'은 지역 내 90세 이상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생일을 축하하고 음식을 전달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고독감을 해소하고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나운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특화 사업이다. 강왕근·임진희 공동위원장은 "앞으로도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다양한 특화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착한가게와 착한가정 등 기부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한편, 나운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 사회초년생 지원사업, 긴급구호비 지원사업 등 다양한 민관협력사업을 통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군산=김만호 기자

건협 전북지부, 전주소년원서 청소년 건강검진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가 소년원 청소년들을 위한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건협 전북지부는 지난 17일 전주소년원에서 '상반기 법무부 소년원 사회공헌 건강검진'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진은 청소년들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검진은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사회공헌 사업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의료 지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날 검진에서는 기초 신체 계측을 비롯해 고지혈증, 간기능, 신장 기능 검사 등 총 37개 항목에 대한 정밀 검사가 체계적으로 이뤄졌다. 이를 통해 개인별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관리 방향을 제시했다. 건협 전북지부는 이번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심리적 안정까지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상근 기자